

한국 농촌의 가족구성과 생활실태

薛 東 勳*

1. 머리말

한국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급속한 공업화·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 산업부문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농촌은 도시 노동력의 주된 공급원이 되어왔다. 이농의 형태는 초기에 노동력 가치가 있는 개인이 단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뒤이어 그의 가족이 합류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설동훈, 1992). 이렇게 계속된 이농은 도시 인구의 급증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에서는 인구과밀·실업·빈곤·교통·공해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대량 이농은 농촌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대량의 급속한 이농이 이루어진 결과, 한국의 농촌사회는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해체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촌에 정착하는 젊은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조차도 농촌에 계속 거주하기보다는 도시로 이주하려는 성향이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근대적 의미의 마을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1970년대 이후,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그들의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런 추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농의 추세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현재 한국의 농촌 가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 농촌문제를 농촌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서 살펴보아야 하는가? 이러한 관심이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농촌 가족의 유형화를 꾀한다. 농촌 가족의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핵가족-확대가족의 이분법을 세분하여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농촌문제가 각 유형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차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농촌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은 농촌사회의 재조직화·재구조화에서 찾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김일철, 1989).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 필자는 대표적인 농촌 가족 구성 유형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가족 구성 유형의 배후에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족생활주기란, 가족이 가구주의 연령 증가에 따라 '형성기→확장기→확장완료기→축소기→축소완료기→해체기'로 이어지며 계속 변화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¹⁾ 이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이용하여,

1) 핵가족을 이념형으로 하는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는 ①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써 가족이 형성되면서 시작된다. 이 시기를 가족형성기(formation phase)라 한다. ②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를 가족확장기(extension phase)라 하며, ③ 막내 자녀의 출산 이후 약 25년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확장완료기(completed extension phase)를 지낸다. ④ 첫 자녀가 결혼하면서 분가해 나가는 시기 이후를 가족축소기

한국 농촌의 가족구조를 여덟 개의 유형으로 세분한 다음, 이 각각의 속성을 확인한다.

후반부에서 필자는 이 여덟 개의 대표적 농촌 가족 구성 유형이 보이는 생활실태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필자는 농민의 생활실태를 농가부채·자녀교육·이촌향도라는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들 각각을 각종 지수를 사용하여 파악할 것이다. 과연 어떤 유형의 가족이 저소득·부채·빈곤으로 이어지는 축에 가까이 자리잡고 있을까? 자녀교육이 문제가 되는 가족은 주로 어떤 형태들일까? 또한, 농촌 가족은 도시로 이주하려는 성향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는가? 여덟 개의 농촌 가족 유형 중 어떤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농성향을 보일까?

분석 자료는 1987년 12월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에서 전국의 산촌·일반농촌·근교농촌·어촌에 걸쳐 8,681가구를 표본 조사한 원자료 테이프를 사용하였다(김일철·권태환·전광희·김익기·김태현·김 인, 1988). 또한 시계열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2. 농촌 가구의 가족구성

1) 통거가족과 별거가족

농촌 가구의 가족 구성을 유형화를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표본 조사자료에서 측정된 조사항목과 그 속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표 1>은

(contraction phase)라 한다. ⑤ 막내의 분가까지 완료된 후 부부만 살게 되는 가족축소 완료기(completed contraction phase; empty nest phase)를 거쳐, ⑥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사는 시기 즉 가족해체기(dissolution phase; widowhood interval)를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 한 사람도 사망하게 되면 가족은 소멸하고 만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78 : 20; 공세권·남정자·임종권, 1983 : 73~79).

표본 조사된 농촌가구의 가족 구성을 나타낸다. 이 표에는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미혼자녀들, ④ 기혼자녀들, ⑤ 기혼 자녀들의 배우자들, ⑥ 손자·손녀들, ⑦ 부모, ⑧ 형제자매, 그리고 ⑨ 기타 친척이라는 아홉 가지 변수들의 속성이 제시되어 있다.²⁾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하며, '별거가족'이란 가족 중에서 함께 살다가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별거가족의 84.6%는 도시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군단위 지역에 거주한다. 가구당 평균 동거가족수는 4.2명으로, 1985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에 나타난 군부의 평균가구원수 4.2명과 동일하다. 가구주는 94.5%가 남성이고, 평균연령은 51.2세이다.

<표 1>에서 '동거 또는 별거'라고 표시한 부분은 가구주와 동거하는 가구원 및 별거하는 가구원이 모두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동거가족은 '동거' + '동거 또는 별거'로 구성되고, 별거가족은 '별거' + '동거 또는 별거'로 구성된다. <그림 1>은 동거가족과 별거가족의 가구원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의하면, 농촌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성원은 가구주·배우자·미혼자녀·부모의 순이며, 도시에 따로 거주하는 가족성원으로는 미혼자녀·기혼자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³⁾

여기서, 동거가족에서 배우자의 비율이 91.2%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가구주'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⁴⁾ 나머지 기혼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비율은 7.5%와 7.0%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형제와 기타 가구원이 합류한 가족의 비율은 각각 3.0%, 0.3%에 불과하다. 즉 농촌 가족의 성원은 주로 직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고, 가구주(α)와 배우자(A), 미혼자녀(β), 기혼자녀

2)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혈연가구와 비혈연 5인 이하 가구 및 단독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였다. 그리고 "누가 가구주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160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일차적으로 제외시켰다. 따라서 8,521가구가 분석 대상이 된다.

< 표 1 > 농촌가구의 가족 구성

(N=8,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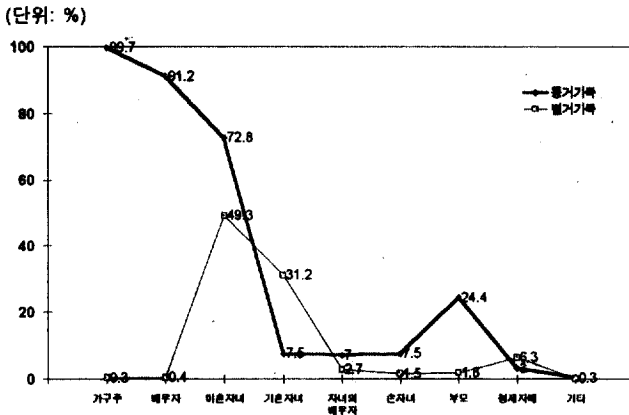
관계	거주형태	백분율	관계	거주형태	백분율
가구주	동거 (8497)	99.7	배우자	동거 (7772)	91.2
	별거 (24)	0.3		별거 (35)	0.4
				비해당/무응답 (714)	8.4
미혼자녀	동거 (3349)	39.3	기혼자녀	동거 (376)	4.4
	동거 또는 별거(2851)	33.5		동거 또는 별거 (262)	3.1
	별거 (1343)	15.8		별거 (2398)	28.1
	비해당/무응답 (978)	11.5		비해당/무응답 (5485)	64.4
자녀배우자	동거 (579)	6.8	손자녀	동거 (587)	6.9
	동거 또는 별거 (17)	0.2		동거 또는 별거 (48)	0.6
	별거 (210)	2.5		별거 (77)	0.9
	비해당/무응답 (7715)	90.5		비해당/무응답 (7809)	91.6
부모	동거 (2050)	24.1	형제자매	동거 (133)	1.6
	동거 또는 별거 (22)	0.3		동거 또는 별거 (119)	1.4
	별거 (125)	1.5		별거 (419)	4.9
	비해당/무응답 (6324)	74.2		비해당/무응답 (7850)	92.1
기타친척	동거 (27)	0.3	가구당 평균 동거가족수 (8521) 4.2명		
	동거 또는 별거 (1)	0.0	가구당 평균 별거가족수 (8521) 1.9명		
	별거 (4)	0.0	가구당 평균 총 가족수 (8521) 6.1명		
	비해당/무응답 (8489)	99.6			

(B), 손자녀(γ), 부모(δ)의 여섯 가족성원들을 중심으로 농촌 가족의 구성원을 유형화하였는데, <표 2>가 그 결과이다.⁵⁾ 표에서는 가구원의 세대(世代) 구성원 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순으로 제시하였다.

'전체가족'의 대표적 가족 구성 유형을 살펴보면, ① '가구주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beta$)⁶⁾, ② '가구주와 미혼자녀 및 부모로 구성된 가족

3) 농촌지역 가구의 99.7%는 가구주가 조사 지역에 거주하며, 나머지 0.3%는 가구주가 따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0.3%를 구성하는 24가수도 분석대상에서 이차적으로 제외시켰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이 농촌가구의 가족 구성에 대한 파악이고, 가족의 기준을 조사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8,497가구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가족생활주기에서는 '해체기 가족'에 해당된다.



〈그림 1〉 동거가족과 별거가족의 가구원 구성

유형'($\alpha + \beta + \delta$), ③ '가구주와 미혼·기혼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beta + B$)의 순이다. 이러한 '전체가족'의 각 세부 가족 유형들은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거가족'의 원형적(原形的) 형태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현재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농촌에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이

- 실제 분석에서는 배우자(A)를 제외시키고, 가구주(α)와 나머지 네 가족성원으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그 중 "가구주만의 가족인 경우"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둘로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연구의 목적상, '1세대 가족'이나 '핵가족'의 경우에만 단독가족(α)과 부부가족($\alpha + A$)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 가족 구성 유형의 경우 이 차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부표 1〉은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홉 가지 경우를 모두 포괄하면서, 동거와 별거 여부를 함께 고려한 가족유형을 보여준다. 그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유형'($\alpha + A + \beta$; $\alpha + A + \beta$ [동거 또는 별거])의 비중이 전 농가의 33.6%로서, 〈표 2〉의 가족전체의 간(column)에 제시된 '가구주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유형'의 41.0%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분석의 간편화를 위하여 직계가족원 중에서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를 제외시켰으며, 그리고 형제자매와 기타 친척을 경우의 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표에 제시된 '가구주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유형'은 '가구주+미혼자녀', '가구주+배우자+미혼자녀'의 두 경우와, 이 각각에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친척'이 포함된 경우까지 포괄해서 폭넓게 이해하여야 한다.

포함된 것이므로, '가족 축소기' 이후의 농촌 가족이 확대가족의 이념형적 형태로 진전된다면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⁷⁾

별거가족은 ①미혼자녀(β), ②기혼자녀(B), ③미혼자녀 및 기혼자녀($\beta + B$)의 가족 유형의 순으로 분포한다. 미혼자녀는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가구주와 떨어져 사는 것이며, 기혼자녀는 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에 서 가구주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 조사를 할 경우, 이들은 농촌의 부모를 한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 가족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전체가족'이 아니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별거가족 유형을 그 구성에 따라 재분류하면, ①'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해 나간 경우'($B; \beta + B; B + \gamma; \beta + B + \gamma$), ②'별거하는 미혼자녀·손자녀가 있는 경우'($\beta; \gamma; \beta + \gamma$), ③'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beta + \delta; \beta + B + \delta$), ④'부모로부터 가구주가 분가한 경우'(δ)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별거가족의 대다수는 ①, ②의 형태이다. 가족생활주기와 관련해서 가구주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별거가족이 56.4세로서 동거가족의 51.2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별거가족이 있는 농촌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하여 가족 축소(contraction)현상이 더욱 크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거가족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가구주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beta$)이며, 다음이 '가구주와 미혼자녀 및 부모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beta + \delta$)이며, '가구주 부부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A$)이 세번째로 많다. 그런데, 앞의 두 유형은 '전체가족'과 순서면에서 동일하지만, 세번째 유형들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비교를 필요로 한다.

동거가족 중 '가구주 부부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A$)의 비율은 전체 농가의 15.6%에 이르지만, 별거가족을 포함한 '전체가족'에서 이 유형은 1.0%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가족의 '가구주와 미혼·기혼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beta + B$)은 19.3%에 달하지만, 동거가족에서 이 유형은 전체농가의

7)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확대가족은 직계가족이다.

< 표 2 > 농촌가구의 가족 구성 분해

세대수	가족 구성 유형	전체가족			동거가족			별거가족					
		가구 %	호주 연령	인 원	가구 수	가구 %	호주 연령	인 원	가구 수	가구 %	호주 연령	인 원	가구 수
1 세대 가족	α	0.3	58.7	1.0	22	1.9	60.8	1.0	165				
	$\alpha+A$	1.0	49.3	2.0	84	15.6	60.7	2.0	1322				
	β									30.1	52.7	2.0	2557
	B									12.2	63.2	3.0	1035
	$\beta+B$									17.9	58.6	3.7	1519
	γ									0.3	70.6	1.8	28
	δ									0.8	38.3	2.0	70
	소 계	1.2	51.2	1.8	106	17.5	60.7	1.9	1487	98.8	56.4	2.7	5209
2 세대 가족	$\alpha+\beta$	41.0	47.9	5.3	3481	49.6	49.5	4.2	4212				
	$\alpha+B$	5.2	66.8	5.8	446	0.8	62.9	3.8	72				
	$\alpha+\beta+B$	19.3	59.2	6.5	1636	1.1	58.9	5.9	90				
	$\alpha+\gamma$	0.1	71.0	5.2	10	0.9	64.8	3.7	74				
	$\alpha+\delta$	1.4	32.5	5.0	119	3.9	45.8	3.3	331				
	$\beta+\gamma$									0.1	64.3	3.5	8
	$B+\gamma$									0.7	64.6	4.2	62
	$\beta+B+\gamma$									0.3	60.6	4.8	25
	$\beta+\delta$									0.7	47.3	3.4	63
	$\beta+B+\delta$									0.1	51.3	4.1	12
		소 계	67.0	52.4	5.7	5692	56.2	49.9	4.2	4779	3.2	56.7	4.0
3 세대 가족	$\alpha+\beta+\gamma$	0.7	54.6	6.2	61	1.0	55.5	5.0	88				
	$\alpha+B+\gamma$	2.8	66.8	7.6	234	3.6	64.9	6.1	308				
	$\alpha+\beta+B+\gamma$	4.0	61.4	8.2	341	1.3	60.8	6.8	109				
	$\alpha+\beta+\delta$	19.6	42.2	6.9	1668	19.3	43.0	5.7	1640				
	$\alpha+B+\delta$	0.5	55.1	6.3	42	0.2	53.1	4.6	14				
	$\alpha+\beta+B+\delta$	3.4	54.0	7.6	289	0.2	52.0	7.2	18				
	$\alpha+\gamma+\delta$	0.1	41.6	6.0	5	0.1	52.8	5.3	11				
		소 계	31.0	48.7	7.2	2640	25.8	47.6	5.8	2188			
4 세대 가족	$\alpha+\beta+\gamma+\delta$	0.2	46.0	7.1	16	0.2	45.2	6.4	16				
	$\alpha+B+\gamma+\delta$	0.1	62.8	7.4	12	0.2	60.4	7.3	17				
	$\alpha+\beta+B+\gamma+\delta$	0.4	55.8	9.2	31	0.1	55.4	7.4	10				
		소 계	0.7	54.6	8.3	59	0.5	53.6	7.0	43			
	계/전체	100	51.2	6.1	8497	100	51.2	4.2	8497	100	56.4	2.8	5379

주: α = 가구주, A = 배우자, β = 미혼자녀, B = 기혼자녀, γ = 손자녀,
 δ = 부모.

1.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집을 떠나 직업을 가지거나, 결혼을 하면 분가해 나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실제로는 거의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축소기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데,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동거가족의 '가구주 부부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A$)은 60.7세, 전체가족의 '가구주와 미혼·기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유형'($\alpha + \beta + B$)은 59.2세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 농촌 가족의 구성

지금부터는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몇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그 구성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은 1966~87년의 농촌 가구원 구성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1966년의 5.7명에서 1985년의 4.3명,⁸⁾ 1987년의 4.2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가족의 인원구성률면에서, 4인 이하 가족의 구성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6인 이상 가족의 구성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⁹⁾

이러한 가족 규모의 축소 추세는 농촌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 원인은 '직접적으로 출산력의 저하가 가족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가족이념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지적된다(최흥기, 1989: 150). 또한, 그것은 농촌 사회에서 분리된 젊은 핵가족이 독립하여 도시 사회에 정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그 결과, 도시의 핵가족은 '가족 형성기'의 젊은층이 많은 데 반해, 농촌의 핵가족은 '가족 축소기·해체기'의 장년·노년층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족 규모의 축소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표 4>는 농촌 가족의 세대 수 구성 추이를 보여준다. 1966년 이후 3세대 이상 가족 비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2세대 가족 비율도 1980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세대 가족 비율은 시종일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8) 1985년 군부의 평균 가구원수는 4.2명이다. 군부는 면부와 읍부로 구성된다.

<표 3> 농촌 가족의 인원 구성, 1966~87

(단위 : %, 명)

연 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계	평균
1966년	2.4	6.5	10.4	13.2	15.2	15.9	14.0	10.1	6.8	5.4	100.0	5.7
1975년	3.8	7.4	10.7	14.0	16.9	17.3	13.8	9.6	3.5	3.0	100.0	5.3
1980년	5.1	10.6	13.2	16.9	20.5	15.8	12.0	4.2	2.1	1.2	100.0	4.7
1985년	3.5	14.6	15.9	19.9	17.9	13.9	5.9	2.8	1.1	0.5	100.0	4.3
1987년	1.9	16.9	18.1	20.5	19.7	13.3	7.2	1.9	0.5	0.3	100.0	4.2

주 : 1966년은 군부이고, 1975~85년은 면부임. 1987년은 표본조사.
 자료 : 통계청,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각 연도.

<표 4> 농촌 가족의 세대수 구성, 1966~87

(단위 : %)

연 도	1세대 가족	2세대 가족	3세대 이상 가족	계
1966년	4.3	64.1	31.6	100.0
1975년	5.4	67.6	27.0	100.0
1980년	7.6	68.3	24.1	100.0
1985년	10.9	67.0	22.1	100.0
1987년	17.5	56.2	26.3	100.0

주 : 1966~85년은 군부임. 1987년은 표본조사.
 자료 : 통계청,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각 연도.

있다. 이와 같은 농촌 가족 규모의 급속한 축소 현상은,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와 관련하여 가족이 세대의 선에 따라 분리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세대의 선에 따른 농촌 가족의 분해 현상은 가족의 규모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구성 또한 변화시켜 가고 있다. 가족관계를 보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이분법이 있다. 핵가족은

- 9) <표 3> 에서 1987년의 경우 '1인 가족의 비율 감소'로 나타난 것은 표본조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의 노인 단독 가구주(단신가족 : α)는 면접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1960~85년의 변화 추이와 대체로 동일하므로, 자료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표 5〉 농촌 가족 분류를 위한 개념 틀

핵가족-확대가족 분류	세부 가족 유형	구성비율	가족원 구성
핵가족 [67.1%]	① 단신 가족	1.9%	a
	② 부부 가족	15.6%	$a + A$
	③ 미혼자녀 포함가족	49.6%	$a + \beta$
확대가족 [32.9%]	④ 기혼자녀 포함가족	1.9%	$a + B$ $a + \beta + B$
	⑤ 부모 포함가족	3.9%	$a + \delta$
	⑥ 손자녀 포함가족	6.8%	$a + \gamma$ $a + \beta + \gamma$ $a + B + \gamma$ $a + \beta + B + \gamma$
	⑦ 부모 및 자녀 포함가족	19.7%	$a + \beta + \delta$ $a + B + \delta$ $a + \beta + B + \delta$
	⑧ 부모 및 손자녀 포함가족	0.6%	$a + \gamma + \delta$ $a + \beta + \gamma + \delta$ $a + B + \gamma + \delta$ $a + \beta + B + \delta$

주 : a = 가구주, A = 배우자, β = 미혼자녀, B = 기혼자녀, γ = 손자녀, δ = 부모.

가구원의 구성이 부부 또는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서 이루어지는 가족(a ; $a + A$; $a + \beta$)을 일컫는다.¹⁰⁾ 확대가족은 그 나머지 유형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족관계의 구성을 좀더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핵가족-확대가족의 이분법을 세분화하여 한다. 분류 기준으로는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의 세대수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핵가족은 ①단신가족, ②부부가족, ③미혼자녀 포함가족으로, 확대가족은 ④기혼자녀 포함가족, ⑤부모 포함가족[2세대], ⑥손자녀 포함가족, ⑦부모 및 자녀 포함가족[3세대], ⑧부모 및 손자녀 포함 가족으로 나뉘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에 따르면, 한국 농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족 유형은 핵가족이며, 특히 미혼자녀 포함가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0) <표 2>에서 $a + \beta$ 는 $a + A + \beta$ 를 포함한 유형이다.

〈표 6〉 가구원수별 농촌 가족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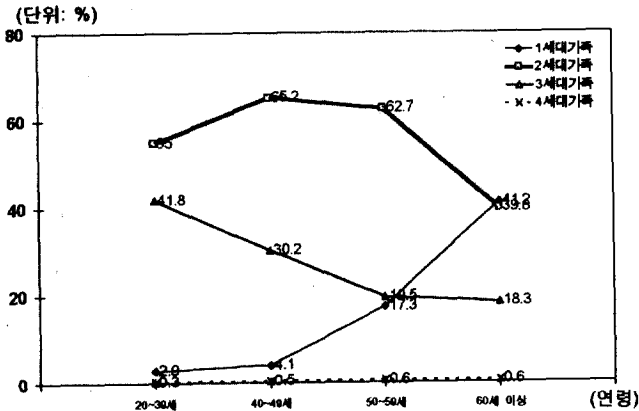
(단위: %, 명)

가족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평균
1세대 가족	100.0	88.6	2.8	1.0	0.5	0.8	0.5	0.6			1.9
2세대 가족		11.4	94.7	82.7	64.6	38.6	27.4	15.9	16.7	23.1	4.2
3세대 가족			2.5	16.3	34.7	59.6	69.6	77.1	63.3	69.2	5.8
4세대 가족					0.2	1.0	2.5	6.4		7.7	7.0
핵가족	100.0	95.6	81.4	77.0	61.3	35.6	24.0	12.7	9.5	7.7	3.6
확대가족		4.4	18.6	23.0	38.7	64.4	76.0	87.3	90.5	92.3	5.4
단신가족	100.0	1.6	0.4			0.1	0.2				1.3
부부가족		87.1	2.4	1.0	0.5	0.7	0.3	0.6			2.1
미혼자녀가족		7.0	78.5	76.0	60.9	34.8	23.5	12.1	9.5	7.7	4.2
기혼자녀가족		0.3	1.5	2.7	1.9	2.6	2.8	2.5	4.8	11.5	5.0
부모포함가족		3.6	12.5	3.1	1.0	0.8	0.8	0.6	2.4	3.8	3.3
손자녀포함가족		0.5	3.0	2.7	7.0	16.4	19.9	24.2	19.0	26.9	5.8
부모·손자녀포함가족			1.7	14.3	28.0	43.4	49.7	53.5	64.3	42.3	5.7
부모·손자녀포함가족				0.1	0.7	1.2	2.7	6.4		7.7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

주: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단신가족과 3인 이상인 부부가족은 가구주의 형제자매가 포함된 경우이다.

〈표 6〉은 가구원수별 '세대수에 따른 가족 유형들', '핵가족-확대가족', 그리고 '여덟 가지 유형의 가족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평균 가구원수를 보면, 핵가족<확대가족, 1세대가족<2세대가족<3세대가족<4세대가족, 단신가족<부부가족<부모포함가족<미혼자녀포함가족<기혼자녀포함가족<손자녀포함가족<부모·자녀포함가족<부모·손자녀포함가족의 순으로 분포한다. 이와 같은 순서는 가족 유형의 정의(定義) 자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은 가구주의 연령별 농촌 가족의 구성을 보여준다. 먼저,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1세대 가족의 가구주가 연령이 가장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핵가족의 가구주가 확대가족의 가구주보다 평균연령이 높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농촌의 핵가족이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여덟 개의 가족 유형들에서, 단신가족과 부부가족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60세를 넘는다는 점은 농촌의 핵가족이 '가족 해체기'의 현



<그림 2> 농촌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 세대수 구성

상임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물론 손자녀 포함가족이나 기혼자녀 포함가족'의 가구주 평균연령도 각각 62.7세와 60.7세로서 아주 높은 편이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비교적 낮은 가족 유형은 부모·자녀 포함가족, 부모 포함가족, 미혼자녀 포함가족으로 각각 43.2세, 45.8세, 49.5세이다.

<그림 2>와 <그림 3>은 <표 7>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림 2>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별 가족 세대수 구성을 보여주는데, 젊은 연령층에서는 2세대 가족과 3세대 가족의 비율이 높지만 고연령층으로 가면, 1세대 가족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농이 젊은 층에 집중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농촌 가구주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설동훈, 1992), 앞으로 한국의 농촌 가족은 2세대와 1세대의 핵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의 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그림 3>이다. 그림에서 가구주의 연령별 핵가족-확대가족 구성은 C모양의 분포를 보이는데, 20~39세에는 거의 반반으로 분포하다가 40대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핵가족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 표는 10월 22일

<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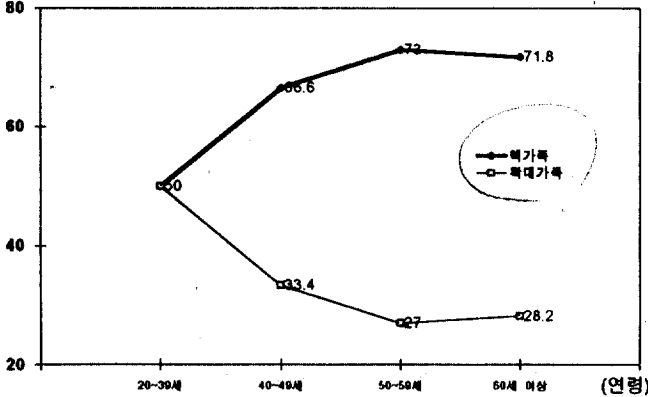
가구주의 연령별 농촌 가족의 구성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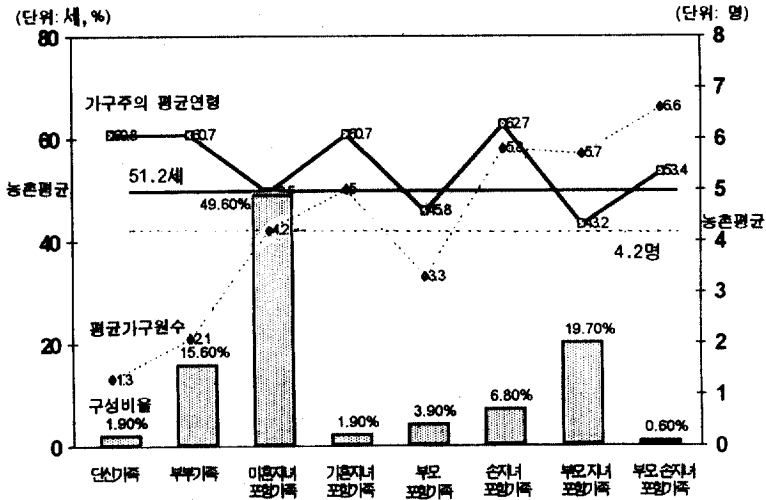
가족구분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연령
1세대 가족	2.9	4.1	17.3	41.3	60.7
2세대 가족	56.0	65.2	62.7	39.8	49.9
3세대 가족	41.8	30.2	19.5	18.3	47.6
4세대 가족	0.3	0.5	0.6	0.6	53.6
핵가족	50.0	66.6	73.0	71.8	52.4
확대가족	50.0	33.4	27.0	28.2	48.7
단신가족	0.3	0.3	2.3	4.2	60.8
부가족	2.6	3.7	15.0	37.1	60.7
미혼자녀	47.1	62.6	55.7	30.5	49.5
기혼자녀	0.3	0.4	2.0	4.4	60.7
부모포함	7.5	2.1	4.5	2.3	45.8
손자포함	0.9	0.8	5.8	18.3	62.7
부모자녀	41.0	29.4	14.0	2.5	43.2
부모손자녀	0.4	0.6	0.6	0.9	53.4
계	100.0	100.0	100.0	100.0	51.2

주 : $\chi^2=1491.1$ d.f.=9 $p<.001$; $\chi^2=267.3$ d.f.=3 $p<.001$; $\chi^2=2938.8$ d.f.=21 $p<.001$

(단위: %)



<그림 3> 농촌 가구주의 연령별 핵가족-확대가족 구성



<그림 4> 한국의 농촌가족 유형별 구성비율, 가구주 평균연령, 평균 가구원수

또 <표 7>을 보면, 여덟 개의 가족 유형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가족과 단신가족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농촌 핵가족이 가족 축소기·해체기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농촌 가족 유형별 구성비율, 가구주의 평균연령, 평균 가구원수를 제시한 것이 <그림 4>이다. 한국의 농촌 가족은 미혼자녀 포함가족이 가장 대표적 유형이며, 확대가족의 형태로는 부모·자녀 포함가족이 다수 분포한다. 그리고 농촌의 핵가족은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아주 높다. 특히 단신가족과 부부가족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각각 60.8세, 60.7세로 나타난다.

3. 농촌 가족의 생활실태와 사회문제

1) 농촌 가족의 생활실태

지금부터는 핵가족-확대가족의 이분법을 세분한 '여덟 가지 가족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농가의 생활실태와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은 농촌 가족 유형별 생활실태를 보여준다. 표에서 각 가족 유형별 지수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수별로 평균을 상회하는 값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먼저, 농촌 가족 전체의 특성을 개괄하면, 가구주의 연령은 51.2세, 가구원수는 4.2명, 가구주의 교육년수는 6.3년,¹¹⁾ 소유경지는 3천 4백평, 연간 총소득은 319만원, 소득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28.1점, 연간 총생활비는 318만원,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율은 24.8%, 저축총액은 46만원으로 나타난다.¹²⁾ 고연령, 저소득 및 낮은 소득만족도, 소득액과 거의 동일한 생활비, 전체의 약 ¼에 불과한 저축가구비율 등이 특징적이다. 이로써 농촌 가족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도시 노동자의 생활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 유형별 경제 생활실태를 살펴보자. 단신가족과 부부가족은 고연령층이면서, 낮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미혼자녀 포함가족은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한편, 기혼자녀 포함가족은 고연령의 가구주에 많은 가구원, 그리고 높은 생활비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부모 포함가족은 비교적 넓은 토지 소유면적, 높은 소득수준·생활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만족도를 보인다. 나머지 손자녀 포함가족, 부모·자녀 포함가족, 부모·손자녀 포함가족은 비교적 넓은 토지 소유면적, 상대적으

11)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년수의 상관계수(Pearson's r)는 -0.521이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것이다.

12) 여기서 평균 총 저축액은 농촌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당 평균 총 저축액은 $46.3 \times (100/24.8) = 186.7$ 만원이 된다.

< 표 9 > 농촌 가족 유형별 각종 지수

지 수	전 체	단 신	부 부	미 혼	기 혼	부모2	손 자	부모3	부·손
• 가족의 비율[%]	100.0	1.9	15.6	49.6	1.9	3.9	6.8	19.7	0.6
• 가구주의 평균연령[세]	51.2	60.8	60.7	49.5	60.7	45.8	62.7	43.2	53.4
• 평균 가구원수[명]	4.2	1.3	2.1	4.2	5.0	3.3	5.8	5.7	6.6
• 가구주의 교육년수[년]	6.3	2.7	4.7	6.6	4.7	7.3	3.7	8.0	6.2
• 총 경지 소유면적[평]	3,352	2,008	2,942	3,001	3,229	4,609	4,161	4,128	4,920
• 연간 총 소득[만원]	318.6	221.8	265.5	315.6	276.6	347.0	345.1	353.1	351.1
• 소득 만족도[0~100점]	28.1	29.4	30.8	27.5	27.7	29.2	28.1	27.2	31.5
• 연간 총 생활비[만원]	318.2	177.7	277.8	313.6	370.4	337.8	321.1	359.3	368.1
• 저축 가구비율[%]	24.8	14.7	15.9	25.6	23.8	25.5	27.5	29.8	31.5
• 저축 총액[만원]	46.3	23.4	24.8	50.5	39.2	35.0	45.9	57.9	57.4

로 높은 소득 수준, 그리고 높은 가구 저축율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생활수준을 가진 각 가족 유형들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까? 다음 절에서는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농촌 가족이 경험하는 사회문제

(1) 농가부채문제

오늘날 한국 농촌의 사회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이 농가의 부채이다(정명채, 1992; 정기환, 1992; 이주재, 1992). 농가의 있어서 부채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그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누적된 농가부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농민을 압박하고 있다.

먼저, 농가부채의 심각성 정도를 살펴보자. <표 9>에 따르면, 한국의 농촌 가족은 전체 가구의 73.2%가 부채를 지고 있다. 그리고 각 가구당 부채총액은 229만원에 달한다. 농가 부채의 심각성 정도를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점수로 환산했을 때, 전체가구는 78.3점 부채가구는 87.6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주 심각하다'는 쪽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¹³⁾ 생활비 중 부채

〈표 9〉 농촌 가족 유형별 농가부채 문제

(단위 : %)

지 수	전 체	단 신	부 부	미 혼	기 혼	부모2	손 자	부모3	부·손
부채 가구비율	73.2	46.6	65.0	74.5	77.6	72.5	72.8	79.2	68.6
부채 총액[만원]	228.8	84.2	174.4	227.8	252.3	237.5	237.1	281.9	288.2
농가부채 심각성 평가	78.3	67.7	73.7	79.1	83.3	75.3	79.3	80.6	76.9
농가부채 심각도(부채)	87.6	79.7	87.0	87.9	90.1	83.1	88.6	88.4	80.0
부채상환율	19.8	11.6	22.5	19.2	18.2	19.3	19.5	20.4	22.1
부채상환율(부채)	23.5	18.3	28.2	22.6	21.2	21.8	23.5	23.4	26.8
부채상환저축율	11.9	4.5	11.3	10.4	19.4	20.2	13.2	13.5	5.9
부채상환저축율(부채)	20.8	12.5	24.7	18.0	33.3	32.7	21.8	21.7	16.7

주 : (부채)는 현재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상환에 사용된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부채상환율'을 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19.8%, 부채가구의 경우는 23.5%에 이른다.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는 빚을 갚는 것에 총 생활비의 거의 1/4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왜 저축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채상환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부채를 지고 있는 농촌가구의 20.8%이며, 이를 전체 농촌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1.9%에 달한다.

한편 각 가족 유형별 농가부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곳에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기혼자녀 포함가족이 여덟 가지 가족 유형 중에서 농가부채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족 유형은 농가문제의 심각성 평가 지수가 가장 높으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저축을 한다는 비율도 가장 높다. 한편, 실제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족 유형은 부모·자녀 포함가족으로서 79.2%가 부채를 지고 있다. 또한, 부모·손자녀 포함가족은 실제 가장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부채 상환율도 높다. 실제 부채가구는 총 생활비의 1/4 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가부채의 원인을 살펴보자. <표 10>은 농촌 가족 유형별 부채

13) 이 글에서는 '부채를 지고 있는 농촌 가구'를 '부채가구'로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농가의 부채의 원인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빚을 지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밝힌 사람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사비용에는 종자·농약·비료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젊은이들의 대량 이농으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여 농민들에게 가중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가부채의 원인으로서는 두번째로 꼽는 것은 자녀 교육비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촌의 소득은 특정 계절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므로, 목돈이 필요한 교육비의 경우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족 유형별로는 미혼자녀 포함가족에서 자녀 교육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그 이유는 이 가족 유형이 취학 연령 자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농가부채에 대해 세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드는 것은 대체로 농지·농기계 및 가축구입의 항목이다. 이것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농사비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농지 구입을 위해 빚을 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표 10 농촌 가족 유형별 부채농가의 부채 원인

(단위: %)

농가 부채 원인	전체	단신	부부	미혼	기혼	부모2	손자	부모3	부·손
농사 비용	30.3	24.4	30.5	30.0	31.3	30.1	31.6	30.9	34.4
자녀 교육비	21.2	21.4	20.7	23.3	17.8	20.9	14.3	19.0	21.3
농지·농기계·가축 구입	18.8	9.2	13.2	17.7	22.6	18.4	20.8	23.3	23.0
생활비	14.8	22.9	17.8	14.9	13.5	13.8	14.8	12.9	9.8
관혼상제	4.1	9.2	7.2	2.8	7.2	8.9	5.9	3.4	1.6
주택개량	2.8	-	2.4	3.3	1.9	2.0	2.2	2.4	3.3
생활용품 구입	1.6	6.1	0.9	1.6	1.0	1.5	2.3	1.5	1.6
오락·관광비	0.1	-	0.1	0.1	0.5	-	-	0.0	-
기타	6.5	6.9	7.2	6.3	4.3	4.3	8.1	6.5	4.9
계 (N)	100.0 10493	100.0 131	100.0 1428	100.0 5318	100.0 208	100.0 392	100.0 683	100.0 2272	100.0 61

* 농가 부채는 대부분 생소한 각종 물건 구입과
이리 등간 수입 부채가 사회적 형편은

도시의 자본이 농토를 투기 대상으로 삼아 농지값이 점점 상승하게 되어 농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이 그간 농업기계화 정책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금융자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부채로 누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1983년에 무한대로 방출해 준 소입식자금은 그 자체가 농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그 후의 계속된 소값파동으로 인해 농민들은 가중되는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다(김익기, 1991 : 31~36).

한편, 농가부채의 원인으로 생활용품 구입이나 오락·관광비를 꼽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오늘날 농민들이 진 빛의 성격이 자기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빈곤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농사비용’이 농가가 부채를 지게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가족 유형별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농가부채의 원인으로서는 두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자녀교육비’였고, 세번째의 것이 ‘농지·농기계·가축 구입’이었는데, 그 상대적 비율이 밑줄친 가족 유형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농지·농기계·가축 구입이 자녀 교육비보다 부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간주하는 가족 유형은, ① 기혼자녀 포함가족과 ② 손자녀 포함가족, ③ 부모·자녀 포함가족, ④ 부모·손자녀 포함가족 등이다.

(2) 자녀교육 문제

농촌에서도 도시에 못지 않게 자녀 교육의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앞의 농가부채와 마찬가지로 교육문제는 한국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1>은 농촌 가족 유형별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지수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농촌 가구 전체의 통계치부터 확인하기로 하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비율은 전체 농촌 가구의 67.8%에 이르고, 생활비 중에서 교육비로 사용하는 액수는 20.6%에 달하며,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28.8%까지나 된다. 저축을 하는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이다”는 비율은 33.7%인데, 학생이

있는 경우는 42.0%까지 된다. 또한 부채를 진 이유가 "교육비 때문이다"는 비율도 21%나 되는데, 학생이 있는 경우는 25.6%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여덟 개의 가족 유형 중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미혼자녀 포함가족 유형으로 나타난다.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유형은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 양육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단신가족과 부부가족의 경우, 특히 학생이 있을 때, 교육비 지출율이나 교육 부채율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도시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경우 그들의 교육비는 생활비의 34~40%에 이르고, 교육비 때문에 부채가 생겼다는 비율도 37~45%에 달한다. 부모·손자녀 포함가족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농촌 가족 유형별 자녀교육 문제 (단위: %)
 (Handwritten notes: "이제 거주 자녀", "농촌")

지 수	전체	단신	부부	미혼	기혼	부모2	손자	부모3	부·손
취학생 가구비율	67.8	25.6	29.1	80.9	48.1	38.2	65.1	27.9	73.1
교육비 지출율	20.6	13.1	13.6	24.7	12.8	13.2	15.4	19.9	19.5
교육비 지출율(취학)	28.8	34.4	40.0	29.7	25.2	34.1	22.5	24.7	26.9
자녀교육저축율	83.7	9.1	13.8	37.6	25.0	21.3	31.6	37.7	58.8
자녀교육저축율(취학)	42.0	28.6	37.7	43.3	31.8	41.2	36.7	41.9	58.3
교육 부채율	21.2	21.3	20.6	23.3	17.5	21.0	14.2	18.9	22.7
교육 부채율(취학)	25.6	44.9	36.4	26.0	24.5	35.8	17.5	22.0	27.1

주: (취학)은 현재 재학중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3) 이촌향도 문제

농민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는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한다. 농촌의 빈곤문제, 교육기회의 부족 등은 도시생활의 이점과 종종 대비된다. 그 결과로 파생되는 총체적 문제가 이촌향도 내지 이농 문제이다. <표 12>는 농민의 가족 중 '실제 이주한 사람들의 이주 이유'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주 이유로 ① 구직, 직업전환, 전근, 돈벌기 위해, 근무인접지로, 오기 위해, 주

택개선·구입 등과 같은 경제요인이 55.0%를 차지하고, ② 진학·학업, 자녀교육 위해, 직업교육·연수·자격취득, 군입대 등의 교육요인이 27.6%를 차지하며, ③ 결혼·배우자 따라서, 부모·가족 따라서, 연고지 찾아서, 도와주려고, 이혼·별거·사망 등의 가족요인이 16.5%를 차지한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악하는 '이주자들의 이주 이유'를 보면,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경제요인 > 교육요인 > 가족요인 > 환경요인 > 기타요인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각 가족 유형이 보이는 비율이 전체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족 유형에 따른 부분적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주 이유로 경제요인이 특히 중요한 가족 유형은 손자 포함 가족과 단신가족이며, 교육요인의 경우 부모·손자녀 포함가족, 부모·자녀 포함가족, 부모 포함가족, 미혼자녀 포함가족이고, 가족요인의 경우 기혼자녀 포함가족, 부부가족이 두드러진다.

<표 12> 농촌 가족 유형별 이주자들의 이주 이유

(단위 : %)

이주이유	전체	단신	부부	미혼	기혼	부모2	손자	부모3	부·손
경제요인(구직, 전근...)	55.0	58.4	54.8	55.4	51.7	51.4	59.4	53.6	48.0
교육요인(진학, 군입대)	27.6	21.9	24.5	29.1	25.2	32.4	20.9	32.4	36.0
가족요인(결혼, 연고지)	16.5	18.4	19.9	14.5	22.4	15.4	18.8	13.4	13.3
환경요인(생활환경, ...)	0.6	0.4	0.6	0.7	0.3	0.5	0.4	0.4	2.7
기타요인(건강·요양...)	0.3	0.9	0.3	0.3	0.3	0.3	0.4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5257	461	4256	6053	294	871	1139	2108	75

<표 13>은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도시 가족과의 관계'를 몇 개의 지수로 구성한 것이다. 먼저, 전체의 특성을 정리하기로 하자. 도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21.3%에 이르고, '따로 사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15.6%에 달한다. 도시 거주경험의 면에서 '따로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농촌 전체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실제 이주가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거의 이주를 마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귀환이동의 경험 여부는 농촌 주민들의 이주 성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 중에서 '외부로부터의 송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 외부 의존율은 전체 가구에서는 4.9%, 별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7.1%에 달한다. 1년간 도시에 방문한 횟수는 15.5회로 나타났으며, 도시방문 이유에 대하여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전체의 18.3%였고, 별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31.4%가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¹⁴⁾ 또한 전체의 59.5%가 도시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별거가족의 이주 희망률은 64.5%로 더 높게 나타난다.

가족 유형별로는 단신가족과 부부가족이 도시 이주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직계 가족원들과의 교류도 빈번하다. 동시에 그들이 소득의 13~19% 정도를 외부에서의 송금에 의존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농촌 가족 유형별 도시 가족과의 관계

(단위 : %)

지 수	전체	단신	부부	미혼	기혼	부모2	손자	부모3	부·손
도시 거주경험율	21.3	13.6	17.2	22.7	16.8	13.6	15.4	23.5	25.9
도시 거주경험율(별거)	15.6	10.9	15.0	16.4	13.4	16.3	15.1	12.9	23.3
소득 외부의존율	4.9	7.5	12.2	3.7	2.9	3.3	4.2	1.8	2.1
소득 외부의존율(별거)	7.1	18.9	12.5	5.8	3.6	3.3	5.5	3.3	3.2
도시 방문 횟수[회]	15.5	12.5	15.2	15.4	16.5	15.9	15.0	16.1	20.7
도시 직계가족 방문율	18.3	50.0	39.8	18.0	23.8	29.7	20.9	12.7	18.2
도시 가족방문율(별거)	31.4	56.1	41.0	27.2	30.8	44.5	24.5	26.8	29.4
도시이주 희망률	59.5	72.2	72.7	56.2	63.8	60.2	65.5	53.4	53.9
도시이주 희망률(별거)	64.5	72.5	73.1	60.4	67.3	67.1	67.3	59.9	50.0

14) 도시 방문 이유 중 "직계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① 기혼자녀 방문, ② 미혼자녀 방문(교육문제 제외), ③ 미혼자녀 방문(교육문제), ④ 직계손속 방문이라는 세부 항목들을 합한 것이다. 별거가족원이 있는 경우의 도시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부표 2>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가 심화되고 농민의 이농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농촌 가족의 변화 및 그 구성을 파악한 다음, 가족 유형별로 농민들이 어떻게 농촌 사회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작업을 하였다. 즉 농촌 가족의 구성과 그 가족 성원이 대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농촌 가족의 변화 및 구성 유형을 파악하였다. 산업화는 대량 인구가동을 동반하여, 농가의 가구원수를 감소시켰으며, 그 결과 미혼자녀 포함가족, 부부가족 및 단신가족 등의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촌에 대거 생성된 핵가족의 성격은 도시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농촌 핵가족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한 뒤 남은 노년층 가구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가구주의 연령과 관련지어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하여 농촌 핵가족화를 가족 축소기·해체기의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가족 유형별 사회문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농가부채 문제에서는 기혼자녀 포함가족이 가장 심각하였다. 자녀교육 문제에서는 미혼자녀 포함가족이 중심이 되고 있었으며, 이혼향도의 문제에서는 단신가족·부부가족의 도시로의 이주성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농촌 가족의 약 과반수가 미혼자녀 포함가족임을 주목한다면, 한국 농촌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은 도시와 비교해서 동등한 자녀교육 기회의 확보와 농촌빈곤의 해소가 그 지름길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한 농가부채 해결의 긴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민의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배분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 농민의 낮은 생활수준이 개선되어 농촌도 살만한 곳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구현이야말로 이농의 추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농촌공동체의 재조직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부표 1 > 농촌가구의 대표적 가족구성 유형(별거가족 포함)
(N=8,521)

대표적 가족구성 유형	백분율(빈도)	누적%
(1) $\alpha + A + \beta$	17.7 (1510)	17.7
(2) $\alpha + A + \beta$ [동별]	15.9 (1353)	33.6
(3) $\alpha + A + \beta$ + δ	7.3 (622)	40.9
(4) $\alpha + A + \beta$ [동별] + B [별]	5.9 (501)	46.8
(5) $\alpha + A + \beta$ [별] + B [별]	5.8 (491)	52.5
(6) $\alpha + A + \beta$ [동별] + δ	4.6 (390)	57.1
(7) $\alpha + A$ + B [별]	3.8 (328)	61.0
(8) $\alpha + A + \beta$ [별]	3.5 (296)	64.4
(9) $\alpha + A + \beta$ + B [별]	3.3 (284)	67.8
(10) $\alpha + A + \beta$ + δ + 형제자매 [별]	2.8 (236)	70.5
(11) α + β [동별]	1.1 (93)	71.6
(12) $\alpha + A + \beta$ [동별] + B [별]	1.1 (92)	72.7
(13) $\alpha + A + \beta$ [별]	0.9 (77)	73.6
(14) $\alpha + A$	0.8 (70)	74.4
(15) $\alpha + A + \beta$ [별] + B [별]	0.8 (66)	75.2
(16) $\alpha + A + \beta$ + δ + 형제자매 [동별]	0.8 (64)	76.0
(17) α + β	0.7 (62)	76.7
(18) $\alpha + A + \beta$ [별] + B + γ + 자녀배우자	0.7 (61)	77.4
(19) $\alpha + A + \beta$ + 형제자매 [별]	0.7 (56)	78.1
(20) $\alpha + A + \beta$ + 형제자매	0.7 (56)	78.7
(21) $\alpha + A + \beta$ + B [별] + δ	0.7 (56)	79.4
(22) α + β [동별] + B [별]	0.6 (55)	80.0
(23) $\alpha + A$ + B [동별] + γ + 자녀배우자	0.6 (55)	80.7
(24) $\alpha + A$ + B + γ + 자녀배우자	0.6 (51)	81.3
(25) α + β [별] + B [별]	0.6 (48)	81.8
(26) α + B [별]	0.5 (41)	82.3
(27) $\alpha + A + \beta$ [별] + B [동별] + γ + 자녀배우자	0.5 (41)	82.8
(28) α + β + B [별]	0.4 (38)	83.2
(29) $\alpha + A$ + B [별] + 자녀배우자 [별]	0.4 (37)	83.7
(30) $\alpha + A + \beta$ [동별] + δ [별]	0.4 (36)	84.1
(31) α + β [별]	0.4 (34)	84.5
(32) 기타	15.5 (1319)	100.0

주 : α = 가주, A = 배우자, β = 미혼자녀, B = 기혼자녀, γ = 손자녀, δ = 부모.

<부표 2> 농촌 가족 유형별 도시 방문 이유 (별거 가족원이 있는 가구)

도시 방문 이유	전 체	단 신	부 부	미 혼	기 혼	부모2	손 자	부모3	부·손
친척·친지의 길흉사	26.3	20.6	24.1	25.8	23.1	27.3	31.7	29.8	23.5
기혼자녀 방문	14.8	44.1	27.2	9.5	10.3	15.2	17.3	7.5	5.9
친척 방문	13.7	2.9	7.7	16.2	12.8	7.1	15.9	16.4	29.4
미혼자녀 방문	8.2	8.8	6.6	8.8	7.7	19.2	5.8	7.2	5.9
미혼자녀 교육	8.1	2.9	7.0	8.6	12.8	10.1	1.4	11.1	17.6
농업·어업 생산 관련	6.4		4.5	7.2	7.7	2.0	5.8	9.5	
소비생활 관련	5.9	8.8	6.1	6.0	5.1	7.1	5.3	4.9	5.9
기타 사적인 일	5.1	2.9	4.9	5.7	7.7	2.0	5.3	3.9	5.9
관광 또는 여가 보내려	3.9	2.9	4.7	3.5	7.7	2.0	5.8	2.6	5.9
치료	3.5	2.9	3.8	3.8	2.6	4.0	2.9	2.6	
농업 이외의 사업·직장	1.2	2.9	0.9	1.2	2.6	1.0	1.0	1.3	
친목활동(관혼상제제외)	1.0		0.9	1.1		1.0	1.4	0.7	
공무(관청, 서류, 기타)	0.7		0.2	1.0			0.5	0.7	
사회단체 활동	0.5		0.9	0.5					
직계존속 방문	0.3		0.2	0.3				1.0	
정보 획득	0.3			0.4		2.0		0.3	
구직	0.2		0.3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432	34	573	1157	39	99	208	305	17

참·고·문·헌

- 강희경·최인현·윤종주
1982 『한국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 WFS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공세권·남정자·임종권
1983 “시설부양 노인의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인구보건논집』 3(2) : 72~85.
- 공세권·박인화·조애조·김진숙·장현섭
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 가족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공세권·조애조·김진숙·장현섭·서미경
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태환
1986 “가족.” 김채윤·권태환·홍두승, 『사회학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pp.99~121.
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 39~56.
- 김익기
1991 “한국의 이농현상과 농촌의 구조적 빈곤.” 『농촌사회』 1 : 9~38.
- 김일철
1989 『한국사회와 재구조화 과정』.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일철·권태환·전광희·김익기·김태현·김 인
1988 『산지 및 산촌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 김일철·권태환·홍두승
1990 『한국의 산촌사회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 김일현·최봉호
1987 “가족 및 가구 변화 추이.” 『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1960~1985』.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김종채
1990 “한국 사회 농민층 분해에 관한 일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21 : 61 ~ 113.
- 김홍주
1992 “현단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농촌사회』 2 : 85~143.
- 남춘호
1988 “이농민의 직업이동사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14 : 84~119.
- 농협중앙회 조사부
1988 『농가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 농협중앙회 조사부.
- 박길성
1990 “Event History Method를 통한 이동 분석.” 『고려사회학논집』 5 : 127~146.
- 배진한
1978 “농촌 노동력 유출과 노동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
1992 "한국의 이농과 도시노동시장의 변화 1960~1990." 『농촌사회』 2 : 145~190.
- 윤수중
1984 "노동력 이동에 따른 농촌 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 이주재
1992 "지역 불균등 발전과 농촌의 빈곤." 『농촌사회』 2 : 281~305.
- 정기환
1992 "농촌 빈곤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중부권 4개 농촌마을 사례." 『농촌사회』 2 : 235~257.
- 정명재
1992 "농촌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 『농촌사회』 2 : 193~233.
- 정세화
1990 "학력에 따른 여성생활주기 비교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8 : 215~245.
- 조영탁
1990 "농업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경제평론』 2 : 335~98.
- 최흥기
1989 "산업화 과정에 따른 한국 농촌의 가족 구성의 변화." 『가족』. 서울 : 우석. pp.142~57.
- 홍동식
1987 "한국의 도시화와 농촌의 저발전." 『현대사회』 7(3) : 113~135.
- Feichtinger, Gustav
1987 "The Statistical Measurement of the Family Life Cycle." Family Demography :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Edited by John Bongaarts, Thomas K. Burch, & Kenneth W. Wachter. Oxford : Clarendon Press. pp.81~101.
- Harris, John R., & Michael P. Todaro
1970 "Migration, Unemployment & Development :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1) : 126~42.
- Höhn, Charlotte
1987 "The Family Life Cycle : Needed Extensions of the Concept." Family Demography :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Edited by John Bongaarts, Thomas K. Burch, & Kenneth W. Wachter. Oxford : Clarendon Press. pp.65~80.
- Kwon, Tai-Hwan, & Kwang Hee Jun
1990 "Rural-Urban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of Individual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2) : 113~34.
- Lewis, W. Arthur
1958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Edited by A.N. Agarwara & S.P. Singh.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400~49.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78 "Health and Family." Studies on Demography of Family Life Cycles and their Health Implications.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